

## <희망TV> 19년간 방송사상 최대 규모 1900억원 모금

5월 15, 16일 방송...온라인과 모바일 통해 기부 쉽게, 다양한 이벤트로 기부 문화 확산



SBS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2015 희망TV SBS>가 5월 15일(금), 16일(토) 양일간 방송된다. 지난 19년간 <희망TV SBS>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55개국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왔다. 국내 최고의 스타 90여명이 출연해 도움을 호소했고, 국내 여러 기업, 기관, 학교 등이 힘을 보태 무려 1천 9백 6억여 원이라는 대한민국 방송 사상 최대 규모의 모금액을 기록했다.

올해도 많은 스타들이 <희망TV SBS>와 함께했다. 박정철은 마다가스카르, 김규리는 에티오피아, 예지원은 케냐, 한고은은 네팔, 김슬기는 우간다로 날아가서 가난과 질병, 아동 노동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故 박용하의 친누나 박혜연은 박용하가 생전에 직접 벽돌을 날라 만든 차드의 요나스쿨에 다녀왔다. <궁금한 이야기 Y>의 스토리텔러 허수경은 국내 난치병 환아들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전한다. 4월 26일 진행된 사진 녹화에서 예지원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허기를 채우는 도시빈민 아이들 이야기를 전하며 3번이나 폭풍 눈물을 쏟았다. 네팔 아이들을 만나고 온 한고은은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연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네팔의 아이들 걱정에 토크쇼 내내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한고은은 결국 5월 1일

(금) 다시 한 번 네팔을 찾아 구호활동에 힘을 보탤다.

### 창사 25주년 맞아 새롭게 탈바꿈

한편 창사 25주년을 맞아 <희망TV SBS>가 새롭게 탈바꿈했다. 해마다 봄가을로 열리는 일회성 방송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젊은 세대의 기부를 유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사전 붙임으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킨다. 그동안의 <희망TV SBS>는 주로 TV를 본 중장년층이 전화로 월 3만원의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해왔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금액만큼 단발성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였다.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포털 DAUM의 '뉴스 펀딩'에서는 이큰별 PD와 배우 김규리, 사진작가 신미식, 에티오피아 한별학교 허달무 선생님이 <한별학교와 꿈꾸는 아이들>을 연재하여 모금을 진행한다. 목표액은 1,004만원이며 현재 27%가량 모금되었다. 모금액은 한별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희망TV SBS> 홈페이지에서는 굿네이버스, 밀알복지재단, 월드비전과 함께 '희망톡톡'을 진행한다. '희망톡톡'을 통해 네티즌들은 자신이 기부하고자 하는 사연에 희망 액수만큼 기부할 수 있다.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SBS 페이스북(www.facebook.com/sbsnow)에서 희망TV관련 동영상 클립에 대해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를 누름으로써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모든 소셜크라우드펀딩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5월 24일까지 '아프리카의 별' 사진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는 5월 5일부터 24일까지 에티오피아 한별학교 아이들이 <희망TV SBS>가 나눠준 100대의 일회용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전시한 '아프리카의 별' 사진전이 개최되어 <희망TV SBS>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또 <희망TV SBS>가 방송되는 5월 15일(금), 16일(토)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는 '희망선물세트' 보내기 운동이 진행된다. 아이들의 체온유지를 위한 모자부터 첫 신발, 배냇저고리, 담요, 비누 등 각 NGO가 진행 중인 나눔 아이들을 한데 모아서 참여자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영유아들에게 전한다. 세트당 만 원에 살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한 세트당 한 시간씩의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희망TV SBS>는 266명 아이들의 엄마인 정애리와 배우 류수영, 아나운서 김주우의 진행으로 5월 15일(금), 16일(토)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 SDF 2015, 전통 미디어 vs 뉴 미디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색>



랄프 리베라

아담 엘릭

스캇 램

로날드 홀스트만

토마스 헬름

뉴 미디어의 거센 도전 속에 비틀거리고 있는 거인, 전통 미디어의 활로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제12회 서울디지털포럼(SDF) 2015'는 SBS 창사 25주년을 맞아 미디어의 미래를 조망하는 세션들을 다수 마련해 이 분야의 대가들을 연사로 대거 초청했다.

전통미디어 가운데 방송에서는 가장 앞서 변화에 고민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진 BBC의 온라인, 디지털 전략 및 R&D를 이끄는 퓨처미디어부의 수장 랄프 리베라, 신문에서는 뉴욕타임스의 혁신보고서를 만든 주역 가운데 하나인 현 제네바 특파원 아담 엘릭,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대표주자로는 뉴욕타임스보다도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내면서 젊은층, 모바일 세대의 미디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버즈피드'의 인터넷서

널 부사장 스캇 램이 SDF를 찾는다.

또한 국내의 각 미디어 산업 전문가와 교수 18명이 SBS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5개월간 매주 모여 패널토론을 통해 찾고자 한 "방송 산업이 '파괴적 혁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 심화세션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그 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13개국에서 방송사업을 하는 거대 미디어 그룹 프로지벤자트라이프의 새로운 시도인 '스튜디오 71'의 사장 로날드 홀스트만, '슬로우 TV'라는 새로운 포맷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노르웨이 NRK방송의 토마스 헬름 PD 등, 총 60여명의 연사 가운데 32명이 미디어 분야일 정도로 올 SDF에서는 "미디어의 미래"관련 전략들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 <메이웨더 vs 파퀴아오> 시청률 19.4% 대기록

'세기의 대결' 중계한 SBS, 스포츠 명가 입증

지난 3일(일) 방송된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 vs 파퀴아오>의 권투 중계가 황금연휴 낮 시간대에 방송됐음에도 불구하고, 19.4%(닐슨 코리아/수도권)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본 경기가 진행된 12시 58분부터 13시 50분까지의 시청률로, 12회가 끝나고 판정을 기다리는 순간에는 21.3%의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층은 20~30대 남성들로 각각 55%, 56%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했고, 40~50대 남성은 49, 48%를, 20~50대 여성은 평균 39.75%의 점유율을 기록해 남성뿐 아니라 여성 시청자들도 이 세기의 대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복싱협회(WBA)와 세계권투평의회(WBC), 세계복싱기구(WBO)의 웰터급 통합 타이틀전으로 치러진 이번 경기는 메이웨더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둬 48전 전승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다.

### <쌈남쌈녀>, 화요일 밤 신형 예능 강자로 급부상



4월 28일(화) 첫 방송된 <쌈남쌈녀>가 전국 4.3%, 수도권 4.9%(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예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정규 방송에서는 설날특집 파일럿에 출연했던 김정란, 선우선, 채정안, 심형탁, 채연, 김지훈 외에 강균성, 이수경, 서인영,

윤소이가 합류했다. 10명의 출연자들은 실제 솔로인지, 진심으로 솔로 탈출을 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장식진 PD가 60명의 후보를 한 시간씩 인터뷰하여 추려냈다. 출연자들은 작심한 듯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이들이 펼칠 '쌈'에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차도녀 이미지 뒤에 감춰둔 아픈 가정사와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처음 공개한 윤소이는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쌈남쌈녀>와 '홍연니' 채정안은 2위와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첫 방송에 앞서 28일(화)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태 예능국장은 "반드시 올해 안에 한 명을 결혼시켜 <자기야 백년손님>에 출연시키고, 아이를 낳으면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시키겠다. 또 첫 번째 결혼하는 사람은 SBS회장이든 사장이든 원하는 분께 주례를 부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쌈남쌈녀>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라디오 볼 개편

### 콘텐츠 다양화로 폭넓은 공감 유도

5월 2일(토) 라디오 볼 개편이 단행되었다. 라디오센터는 출퇴근 및 주말 저녁 이동시간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으로 폭넓은 청취자와 공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라디오 볼 개편을 시행하였다.

### 방방곡곡의 맛집 소개 <맛있는 라디오> 신설

러브FM(수도권103.5MHz)



주말 저녁 본격 'COOK 樂 프로그램' <맛있는 라디오>(토,일 20:05-22:00)를 신설했다. <맛있는 라디오>는 먹방, 쿡방이 대세인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하는 본격적인 맛 프로그램이다. 음식평론가 황교익과 대중음악평론가 강현이 만나,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맛집을 소개한다. 류철민PD는 "맛있는 라디오"를 들을 때는 꼭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시라"고 당부했다.

매주 월~금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고 있는 <스위트 뮤직 박스>(연출 송경희)는 5월 4일(월)부터 최영주 아나운서가 DJ를 맡아, 편안한 올드 팝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의 퇴근길에 활력과 위안을 선사한다. 최영주 아나운서는 "지친 일상에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위안처럼, 잔잔하게 청취자들의 마음을 덥혀 주는, 기분을 잊지 않는 방송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K-Pop 열풍에 불 지핀다 <Vixx N K-Pop>

파워FM(수도권107.7MHz)

인기 아이돌그룹 빅스의 리더, 엔이 진행하는 <Vixx N K-Pop>(연출 구경모)이 신설되었다. <Vixx N K-Pop>은 방송사 최초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K-POP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된다.

노래와 사연소개 위주로 진행했던 타 심야 프로그램과는 달리, <Vixx N K-Pop>은 매일 화려한 게스트를 초대하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또 각종 SNS에 '보는 라디오' 동영상을 집중 업로드해서 국내 청취자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 서비스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연을 모집, 소개한다. 외국어 사연은 '보는 라디오'에서 자막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 고정 게스트로 활약하며 DJ가 꿈이라고 밝혀 왔던 엔은 "데뷔 때부터 희망했던 DJ의 꿈을 이루게 돼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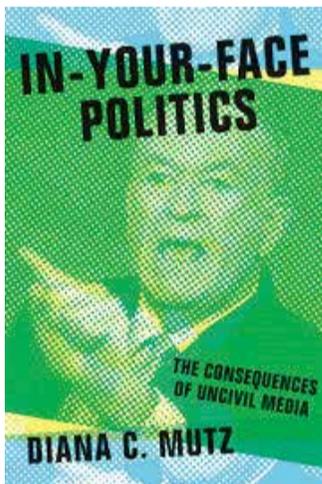
## 〈달과 바다〉 등 ‘휴스턴 페스티벌’ 5개 부문 수상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4월 19일(일) 개최된 ‘제48회 휴스턴 국제필름 페스티벌’에서 SBS의 다섯 개 프로그램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SBS대기획 달과 바다〉(연출 장원준)는 TV스페셜 다큐멘터리 부문 플래티늄, 〈TV동물농장 - 날아라 직박구리〉(연출 이덕진)는 어린이프로그램 부문 플래티늄, 〈그것이 알고 싶다 - 뼈동굴 미스터리〉(연출 안운태)는 탐사저널리즘 프로그램 금상, 〈SBS스페셜 부모vs학부모〉(연출 박진홍)는 사회이슈다큐멘터리 부문 은상, 〈SBS대기획 최후의 권력〉(연출 장경수, 이정홍)은 국제이슈 부문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 ‘휴스턴 페스티벌’은 뉴욕, 반프 TV 페스티벌과 함께 북미 최대의 TV 전문 페스티벌 중 하나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 〈2012 SBS대선방송〉 미 정치학 서적에도 실렸다 프린스턴대 출판...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 외신까지 대선의 또 다른 승자는 SBS라며 극찬했던 〈2012년 SBS대선방송〉이 미국 정치학 서적에 성공사례로 실렸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출판부가 지난 3월말 간행한 정치학 서적 ‘In-Your-Face Politics’에서 저자 Diana C. Mutz교수는 “시청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경매중계 방식이 선거방송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준 사례가 2012년 한국의 SBS 대선방송”이라며 “SBS는 탁월한 콘텐츠를 통해 그 래프와 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서적은 또 “SBS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개표방송에서 시선을 땔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시청자의

말도 인용하면서 2페이지에 걸쳐 SBS대선방송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성공사례로 깊이 있게 다뤘다.

SBS선거방송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재에 수록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세계 선거방송 역사에 한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최기환 아나운서, 네팔 지진 구호금 천만 원 쾌척



최기환 아나운서가 국민연금 홍보대사 활동비로 받은 천만 원을 네팔 지진피해 구호금으로 기부했다.

〈모닝 와이드〉 3부를 진행하고 있는 최기환 아나운서는 지난 1일(금), 네팔 현지상황과 구호활동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출연한 굿네이버스 김선 국

제구호본부장을 통해 지진 피해 구호금으로 써달라며 천만 원을 기부했다. 최기환 아나운서의 기부활동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월드비전을 통해 부룬디 루타나 병원에 산모병동을 짓는 데 천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희망TV SBS〉 희망원정대와 함께 부룬디로 떠났던 최 아나운서는 산모들의 열악한 상황을 목격한 뒤, 기부를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최기환 아나운서는 어머니가 부탁한 딱한 사정의 환자를 돕는 데 천만 원을 기부했다.

## SBS, 첨단 방송기술로 KOBA 2015 전시회 참가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5회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2015’가 5월19일(화)부터 22(금)까지 COEX에서 열린다. SBS는 이번 KOBA 전시회에 ‘초연결시대의 방송기술’이라는 테마로 4K UHD TV를 포함한 SBS의 고품위 콘텐츠 제작기술과 최고의 기술 솔루션을 전시한다.



KOBA 2014 SBS전시관 전경

특히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NAB에 전시하여 호평을 받은 국내 최초 4K 비디오서버 ‘시리우스4K’, 클린본 영상 자동생성 시스템인 ‘MASIC’ 등의 첨단 방송기술 전시를 비롯해서, 타사와는 격이 다른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로 SBS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전시회와 같이 열리는 KOBA 컨퍼런스에서는 특별히 예비 방송기술인을 위한 Pre-Engineer 세션이 무료로 준비되어 있고, 올해 처음 막을 올리는 KOBA 월드 미디어포럼은 ‘미디어전쟁, 죽느냐 사느냐?’라는 주제로 미디어 생존전략에 대해 토의한다. 뉴미디어개발팀 오건식 국장은 “SBS 직원을 특별하게 모실 것”이라며 사원들이 많이 참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전 참가신청은 [www.kobashow.com](http://www.kobashow.com)에서 가능하며, 목동 및 일산의 SBS 안내데스크에 무료 티켓이 준비되어 있다. 전시기간 동안 목동 본사 옆 오목공원쪽에서 무료셔틀이 출발한다.

## 인프라관리팀 정철민 부장, 시설팀 김호남 차장 정년

4월 29일(수) SBS 목동방송센터 20층 회의실에서 인프라관리팀 정철민 부장과 시설팀 김호남 차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1991년 SBS에 입사하여 기술감독 업무를 시작한 정철민 부장은 인프라관리팀에서 방송 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방송



시스템 운용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에 기여하였다. 해외 빅 이벤트 시 기술 코디로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한 바 있으며,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HD TV로의 방송시스템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SBS 방송 품질을 격상시켰다.

1991년 입사한 김호남 차장은 단순 사무공간이었던 여의도 사옥을 방송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TV개국에 공헌하였다. 또 일산제작센터 G스튜디오를 신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목동 사옥의 시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사옥 이주 후 임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9층 옥상 정원 공간을 만들어 직원들의 휴게 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등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

## SBS 스포츠 WTF와 태권도 발전 위해 전략적 제휴



SBS스포츠와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손잡고,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콘텐츠로 성장시킨다. 유환식 SBS스포츠 사장과 조정원 WTF 총재는 4월 29일(수)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태권

도의 중계 품질을 강화하고, WTF 주최 국제 태권도 경기의 국내 방송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 태권도 대회를 주최하는 WTF는 태권도를 더욱 매력적인 TV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태권도 중계 전문성을 보유한 SBS스포츠와 파트너가 됐다.

SBS스포츠는 2012 런던올림픽 태권도 국제신호(IS, International Signal)를 제작하는 등 태권도 중계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SBS스포츠는 WTF의 TV 프로덕션 파트너로서 2016년 말까지 WTF 주최 주요 대회 중계 제작에 참여해 국제신호 제작을 권설팅하고, 제작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 “유일무이한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 〈김정일의 생생가요〉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일 04:00-05:00

음악은 그저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그것을 처음 듣던 순간부터 개인의 역사입니다.

저 김정일이 11년째 진행을 맡아오고 있는 〈김정일의 생생가요〉는 모든 채널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성인 음악(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중에 매일

하는 고정 멘트 중에 이 문장을 참 사랑합니다. “〈김정일의 생생가요〉는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일으켜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밤새 일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잠 못 이루고 밤을 하얗게 샌 분들의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대의 청취자들과 함께하다 보니 이젠 택시를 타면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아~ 〈생생가요〉?” 하시는 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한 방송을 10년 동안 진행한 이에게 주어지는 ‘Voice of SBS’에 선정되어 라디오 스튜디오 로비에 사진과 이름이 걸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SBS홈페이지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엽서로 힘을 북돋워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늘 제 곁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그동안 함께 방송을 만들어 여기까지 온 9명의 PD와 5명의 작가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연·전시

## 한국 초연... 뮤지컬 〈팬텀〉 연일 매진 기록



기간: 4월 28일(화)~7월 26일(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31년 간의 기다림 끝에 뮤지컬 〈팬텀〉이 역사적인 한국 초연을 시작했다. 뮤지컬 〈팬텀〉은 토니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의 작품으로, 원작인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1910)을

가장 충실하게 살린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1년 미국 월드 프리미어 당시 언론과 평단에게 극찬을 받으며 미국 전역에서 연속 매진 행렬 속에 6년간 600회 이상 공연됐다. 독일, 캐나다, 호주 투어에서도 크게 성공하였고, 특히 2010년 일본 공연에서는 일본 최고의 뮤지컬 스타가 출연하여 전석 매진의 신화를 달성했다. 최근에는 2013년 영국에서 프리미어를 가지며 시대를 초월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매김 했다.

뮤지컬 〈팬텀〉은 그 동안 여타 작품에서 조명 받지 못했던 팬텀의 비밀스러운 유년기 시절을 깊이 있게 다루고 흥미로운 캐릭터와 장면들을 추가하여 개연성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정적이면서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한국 프로덕션만을 위해 모리 예스톤이 작곡한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고, 일렉트로닉 음악의 요소를 더한 편곡을 통해 〈팬텀〉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한다. 이외에도 프리마 발레리나가 선보이는 고혹적인 전통 발레,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는 관객에게 뜨거운 정서적 울림을 안겨준다.

독보적 위치의 뮤지컬 배우 류정환과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 박효신, 크로스오버 뮤지션 카이, 유럽 바로크 오페라의 디바 임선혜 출연으로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팬텀〉은 7월 26일(일)까지 계속된다.

## 경조사

· 애도합니다

보도국 기획취재부 손승욱 차장 모친상(5월 6일)

사우기고

## 지상낙원 따로 없는 ‘디스커버리 베이’

- 기획팀 최아민

여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난 3월, 저는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입사 합격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떠났던 홍콩.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댄 1년 후 다시 찾은 홍콩이었기에 이번 여행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홍콩’을 떠올리면 화려한 야경과 경쟁하듯 치솟은 빌딩 숲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복잡한 홍콩섬의 명소들은 이미 둘러봤기에 이번에는 한적한 곳 위주로 여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곳은 ‘디스커버리 베이’라는 작은 해변 마을입니다. 란타우섬 동쪽 끝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베이는 영국 식민지 당시 휴양도시로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 주재원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착장에 내려 디스커버리 베이를 바라본 그 첫 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변을 따라 펼쳐지는 산책로와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노천카페들, 그 뒤로 죽 들어선 리조트 같은 주택들. 지상낙원에 와있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그 동안 꽤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긴장을 풀고 여행지에 흠뻑 젖어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아, 일 년 전 홍콩에서 스스로에게 썼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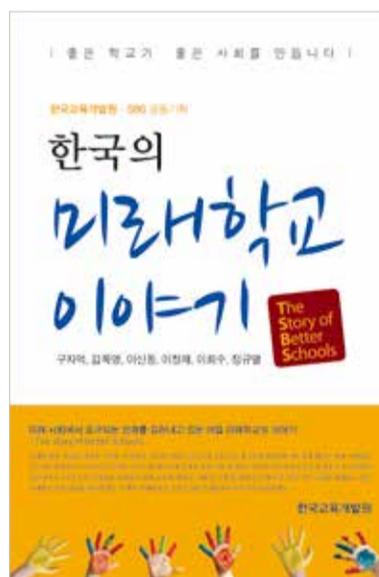
입사를 준비하며 치열하게 보냈던 시간들, 합격발표 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보냈던 꿈같았던 시간들, 첫 출근을 앞두고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 정신없이 흘러간 지난 1년 동안 잊고 지낸 그 때의 내 모습과 감정들이 어색하기도, 반갑게도 느껴졌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그저 허공으로 흩어져버렸을 시간들. 이번 여행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SBS에서 보낸 첫 해가 3박4일의 여행 일정만큼이나 짧게만 느껴집니다. 주변 선배들은 종종 “아민씨, 아직 입사한 지 일 년 밖에 안됐어?”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어느덧 저도 익숙한 SBS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몫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느낍니다. 내년 이맘때쯤 돌아보는 SBS에서의 새로운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 서울에는 없는 한국의 8개 미래학교 이야기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선정한 미래학교



이창재 등 | 한국교육개발원

SBS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 추진한 미래학교 선정 사업이 책으로 나왔다.

SBS 미래부와 교육개발원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탐색과 그에 맞는 학교 운영사례 발굴·확산을 위해서 미래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선정 사업을 해왔다.

이 책에는 전남 고서초, 경남 서상초, 충남 차동초, 경남 진해남중, 제주 위미중, 인천 해송고, 대구 포산고, 충북 청원고 등 8개 미래학교의 우수 사례를 담았다.

사우 여러분의 사보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 후기나 독후감, 전시나 공연 관람후기, 그 밖에 사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떠오른 단상들을 사보 담당자(PR팀 전은진 차장)에게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수예당 화과자 등)을 드립니다.

수예당 화과자